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우리 걸음걸이를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소서**
- 시편 119:133 -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주 현 후 5 주 】 인도 1부 : 김재홍 목사
 (2부 찬양: 407.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2부 : 이재훈 목사

- 전 주 반주자
- 임재의 기원 38.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 예배로의 부름 김기석 목사
- ▲ 경배의 찬송 10. 전능왕 오셔서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맑은 하늘과 상쾌한 바람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올해도 벌써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님, 바쁘고 분주한 날들로 인해 일상의 소중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관계의 어긋남과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가지런히 정돈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생기를 잃어버린 우리를 붙잡히 여겨주십시오. 떨어진 이웃과의 관계와 침체한 경기로 인해 삶이 건조해졌습니다. 주님,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더디고 미련해 보이더라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방식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희망 없는 곳에 희망을, 평화 없는 곳에 평화를 일구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시 119:165~166 인도자
- ▲ 교 독 문 70. 이사야 42장 다 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 2부 대표기도 박성희 권사
- 2부 응 답 송 반주자
- 2부 찬 양 445.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다 함께
- ▲ 성경봉독 마 4:23~25 1부:인도자/2부:하정석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 독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합 계

찬 양	I.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마중물 찬양대
	II. 은혜의 강가로	청과 찬양대
말 씀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들	김기석 목사
거듭 기도		다 함께
2부 찬 양	216. 성자의 귀한 몸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세상살이가 막막하다고 하여 불평만 하지 마십시오. 손 내미는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주님은 함께 일할 사 람을 찾고 계십니다. 냉랭해진 세상에 온기를 전하고, 상처 입은 세 상을 따뜻하게 감싸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누군가 먼저 다가와 주기만을 바라고, 내가 먼저 손 내 밀지 못한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 곁에 서겠습니다. 주 님을 홀로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생기가 넘치는 작 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 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기석 목사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다음주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김재홍
	2부 김기석	김영호	정택중	이재훈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ungpachurch/>
 청파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실황 -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예배실황' 클릭
 청파교회 카카오톡 채널 : 친구검색창에 '청파교회' 검색 후 채널 추가
 ※ 헌금계좌 : 새마을금고 9002-1751-3375-3 (예금주 : 청파교회)

